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3
2018.12.9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17~18

오늘의 주요기사

2면	특별 기고
3면	2018 설문조사 특집
4면	성서 칼럼
5면	사역 보고
6~9면	창립30주년 기념 지상토론
10면	사역 소식
11면	공동체 소식
12면	아기나들이

교회일정

12/9(주일)	정기당회
12/11(화)	늘푸른대학 종강
12/23(주일)	성탄가족예배
12/25(화)	성탄예배 / 성탄절유아세례 / 성탄찬양예배
12/31(월)	송구영신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은사를 만드는 기적, 사역박람회

2018년 사역박람회가 11월 18일과 25일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참여를 원하는 사역팀을 중심으로 박람회가 진행되어 집중도를 높였다. 은사사역팀에서는 각 사역팀의 홍보를 위한 전시자료 제작을 지원해서 참여한 사역팀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번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163명이 사역 신청을 했으며, 그중 샬롬찬양대에 34명, 국내선교분과에 22명이 지원하여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3면

함즐함울

교회의 10년 청사진 선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향한 첫걸음

11월 25일 김화수 담임목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교회 10년의 청사진을 선포했다. 이 청사진은 10년간 목회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2018년 11월 부임 직전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비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미션, 그리고 "1.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2.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4.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5.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 6.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며 살아갑니다, 7.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라는 7대 실천 미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청사진은 이후 일년간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청사진의 중심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삼각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삼각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그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가정은 신앙의 주체"이며, "교회"는 "유·유·청·청 Revival(리바이벌)"의 개념을 중심으로 목회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임 담당교역자를 청빙하여 책임지고 사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삼각형은 교회 공동체가 소망하고 표현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을 의미하며, "뷰티풀 페어런팅(Beautiful Parenting)- 아름다운 자녀양육", "큐티-생활화", "소그룹-활성화"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2019년 교회 안에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Beautiful Parenting Center)"가 설립되어 "부모학교, 부모예배학교, 마더와이즈(Mother Wise), 파더와이즈(Father Wise), 결혼예비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큐티의 생활화"도 지속적이며 제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주간의 정식 훈련과정도 개설된다. 이와 함께 겨자씨 모임을 포함한 소그룹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이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방안들이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협조와 관심을 강조했다. 〉특별기고 2면

함즐함울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담임목사 특별 기고 | 교회의 미래를 밝힌다

주님의교회 사역 청사진(2018~2027)

새로운 사역 청사진의 탄생 과정

주님의교회 부임 직전인 작년 11월 25일 저는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7대 실천 미션에 관해 설명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일 년간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핀 후, 7대 실천 미션을 구체화한 사역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체 교우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임 후 단시간에 교회 전체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고 결정하기보다, 일 년 정도 교우들로부터 교회 사정도 충분히 듣고, 직접 살펴본 후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이 다이어그램이 그렇게 준비한 주님의교회 사역 청사진입니다.

중심 원리

주일 설교와 여러 경로를 통해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다이어그램 왼편과 오른편 삼각형의 중심에는 공히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과 그 모든 표현은 허망하고 허탄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삼각형(붉은색)

다이어그램 오른편 삼각형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가정, 교회,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축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다이어그램 오른편 삼각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그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삼각형의 맨 위쪽에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의 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신앙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두면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도 교회에 출석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가족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또 예배공동체로서 함께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상 대부분을 함께 하는 가정이 신앙이 주체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우리 자녀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삼각형의 왼쪽 아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유·유·청·청 Revival(리바이벌)"입니다. 이때 첫 번째 "유"는 유치부 이하의 미취학(7세 이하) 연령대에 속한 모든 부서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유아 숲"이라 칭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유"는 유소년을 말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해당하는 부서들입니다. 이를 "아동 숲"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청"은 청소년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비전샘)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청소년 숲"이라 이름합니다. 두 번째의 "청"은 청년부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Revival(리바이벌)"이란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말인데,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인 "유·유·청·청"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유·유·청·청"이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학교 편제와 달라지는 점은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에 6년 동안 사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전임 담당교역자를 청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목회원을 총괄하는 6년 임기의 전임 담당교역자는 있었지만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을 총괄하는 전임 담당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목회원 총괄 교역자가 초등학생 연령(아동 숲)을 담당하고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에 6년 임기의 전임 담당교역자를 세워서 그 부서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는 "유·유·청·청" 각각 모두 전임 담당교역자가 책임지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삼각형의 오른쪽 아래에는 가정, 교회와 연결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경계 지워진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의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원칙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삼각형의 마지막 꼭짓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 삼각형(푸른색)

왼쪽 삼각형(푸른색)은 오른쪽 삼각형(붉은색)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표현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맨 위쪽에는 "뷰티풀 페어런팅(Beautiful Parenting) – 아름다운 자녀양육"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교회에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는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Beautiful Parenting Center)"가 세워집니다. 이 센터에서는 "부모학교, 부모예배학교, 마더와이즈(Mother Wise), 파더와이즈(Father Wise), 결혼예비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른편 삼각형의 왼편 아래 모서리는 "큐티-생활화"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큐티는 낯선 일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도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데 기초를 닦고자 전교인이 힘을 합쳐 지속해서 "큐티의 생활화"를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큐티의 생활화"는 우리 주님의교회의 기초 사역 중 하나로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5주간의 정식 훈련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삼각형의 맞은편 꼭짓점에는 "소그룹-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주님의교회는 겨자씨 모임을 포함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른편 삼각형(붉은색)에 표현된 우리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왼편 삼각형(푸른색)의 실천방안들이 확고하게 추진되고 정착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교회는 이 3대 사역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래 직사각형

이 삼각형들의 아래쪽에는 7대 실천 미션을 기록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삼각형들이 바로 이 7대 실천 미션을 구체화한 목표와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의 이 계획과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7대 실천미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화수**